

# 완도소방, 하트·브레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심정지·뇌졸중 등 환자 살린 구급대원, 소방장 신명관·소방사 김진원



하트·브레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완도소방서 제공

완도소방서는 2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들에게 하트 세이버(Heart Saver) 및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하트 세이버와 브레인 세이버는 심정지 및 뇌졸중 환자 등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명예로운 인증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완도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장 신명관, 소방사 김진원 대원이

하트세이버 및 브레인세이버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

완도소방서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한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는 2025년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완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순천 도사동,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봉사 순천시 도사동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관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세대에 청소를 지원하고 싱크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제철소, 주간보호센터어르신 '치매 예방' 봉사 활동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지역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매 예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 낙안면, 영농폐기물 70톤 수거 순천시 낙안면은 각 마을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70톤가량을 이틀간 수거했다고 2일 밝혔다. 낙안면 역량강화사업으로 선정된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은 폐비닐·부직포·차광망·모판·점적호스 등 영농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조준익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Y-카페 365' 후원금 전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Y-카페'에 매주 금요일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날'로 지정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 광주은행 '광주화루 대상'에 김정옥 작가, 상금 3천만원

제8회 공모전에 작가 150명 지원, 1일 10명 선정 시상  
본점 아트홀서 5월31일까지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광주은행이 지역 문화·예술 상생 발전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광주화루 한국화 공모전' 올해 입상 작품이 결정됐다.

이 공모전은 2016년부터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열고 있다.

광주은행은 전남 본점에서 '제8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과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해 10월 작

품 접수를 시작해 150여명의 지원자 중 포트폴리오 심사, 출품작품 심사, 심층 면접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0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대상은 김정옥 작가, 최우수상 박세진 작가, 우수상 김홍성·박형진·전지홍 작가가 수상했다. 또 기민정·오세경·최혜연·함수지·허용성 작가 등 5명이 입상했다.

상금은 대상 3000만원(1명), 최우수상 2000만원(1명), 우수상 각 1000만원(3명), 입상 각 200만원(5명)을 수여했다.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은 5월 31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아트홀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 진월면 시민감동정원 '경관 조명' 설치 완료



자연과 인문, 야간경관과 먹거리가 어우러진 수변 힐링 관광지로서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교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망덕포구에 새로운 경관 조명이 탄생했다.

광양시가 망덕포구에 있는 진월면 시민감동정원에 꽃, 달, 별, 벤치 등 섬과 낭만이 있는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과장과 윤동주 시 정원의 중간 지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원형의 꽃밭 한가운데 군데군데 크레이터로 움푹 파인 화석의 보름달을 표현했다.

또한, 420개의 꽃 조형물이 둥근 달을 에워싸고 있으며 별 모양이 타공된 정육면체 상자 2개와 백색의 벤치가 조화롭게 놓여 있어 여행자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

## 건협-캄보디아 한인회,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회원 및 가족 위한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추진



KH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3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소에서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거주 한인들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향후 건협은 전국 17개 건강증진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한인사회를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해외 거주 한인들의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건강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 역시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 한인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뜻깊은 협력”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진 예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캄보디아 한인회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추후 한인회 공식 채널 및 건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 광주시교육청 '내 꿈 찾기 진로상담' 운영

학습전략검사 등 실시...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내 꿈 찾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꿈 찾기 진로상담'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이며, 4~12월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 교사, 광주교대 진로진학 컨설팅교육센터 연구원 등 40명으로 구성된 진로상담지원단이 맡는다.

시교육청은 하루 선택순 3명만 선정해 상담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초·중학생 상담은 매주 월·화·목요일 방과후(오후 5~8시)에, 고등학생 상담은 매주 수요일 방과후(오후 6~9시)에 진행되며, 학생당 2~3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진로상담지원단이 학생과 상담을 거쳐 학습태도와 정서를 파악하는 학습전략검사(MLST)와 학생들

의 직업적 성격 유형을 파악해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홀랜드 진로발달 검사를 활용해 진행한다.

검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상담 희망일 전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상담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단, 6월 상담과 11월 상담은 5월과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5월 7일과 10월 10일에 신청을 받는다. 1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관계로 상담이 운영되지 않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맞춤형 진로상담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순천 삼산동 '용당뚝방길 벚꽃축제'

5일 대형산불 등으로 공연 취소...수익금 이재민 돕기 기탁



순천시 삼산동은 오는 5월 '제11회 용당뚝방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벚꽃축제는 봄바람과 함께 만개한 용당뚝방길 벚꽃을 배경으로 '동천 벚꽃 아래, 너와 나의 봄 이야기'를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당초 순천시립합창단, 버스킹, K-pop 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축제의 수익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기탁될 예정이며, 안전한 행사를 위해 산불 예방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갑섭 삼산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축제로 지역사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 목포해경, 노트북 등 전산장비 50점 기부

노트북·데스크탑·모니터 등 불용 장비 나눔

목포해양경찰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7대, 데스크탑 15대, 모니터 28대 등 3종 50점을 한국장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무상으로 양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무상양여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전산 장비 중 교체 주기가 도래했지만,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불용

처리 대상 노트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불용물품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보안유출 방지를 위해 저장소를 전공하는 방법으로 보안조치도 마무리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 '독서 연계 역사 프로그램' 운영...11월까지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민주주의 감수성 회복을 위해 '2025 독서 연계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기념일로 보는 독립운동·민주화 이야기' ▲'책으로

읽는 한국사 바로알기'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등재유산' ▲'한민족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누리집 또는 문헌정보과(061-221-55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